

한빛원전 방사성폐기물 10월 하순 해상운송한다

<중저준위>

한수원, 협상 마무리 안된 채 1000드럼 경주 이송키로

지역민 반발 속 피항지 선정 진도·광양 어민 반응 주목

한국수력원자력이 10월 한빛(영광) 원전 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배에 싣고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까지 옮기기로 결정했다. 방사성 폐기물의 구체적 해상 운송 시기를 마침내 확정할 것으로, 어민 설득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독단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0월 한빛원전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1000드럼(1드럼 200ℓ)의 해상 운송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달 24일 방사성 폐기물의 해상 운송을 요청한 '인수 의뢰 신청서'를 원자력환경공단에 제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인도(引渡)하려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해당 방사성폐기물 인수를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10월 24일 방사성 폐기물의 '인도'가 시작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수원도 방사성 폐기물의 해상 운송 시기를 '10월 말'로 잡아놓은 것으로 확인했다. 한빛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도 이 같은 한빛원전 일정을 파악한 상태다.

원자력공단측은 이 같은 점을 들어 이달 말 인도에 앞선 점검을 시작할 계획으로, '인도 전 점검'에는 원전 폐수, 폐 필터, 농축 폐액 등이 담긴 방사성 폐기물의



한진청정누리호

방사선량·방사선 용기 상태 점검 등이 이뤄진다.

지난 1986년 원전 가동 이후 한빛원전에 보관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지난 6월 말 기준 2만2936드럼으로, 98.43%의 저장률을 보이는 등 평화 상태에 육박하고 있다.

한빛원전이 국내 전력수요의 10%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하면 한계에 이른 방사성 폐기물 이송이 조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

우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수원이 영광 어민과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빛원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인수 예정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에 속도를 낸 것도 저장공간(총 2만3300드럼) 포화로 인한 가동 중단 등 최악의 상황을 피해보자는 속내가 작용했다는 게 한수원 안팎의 분석이다.

하지만 영광 등 지역어민들은 '설득 뒤 해상 운송'이라는 한빛원전측 방침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거세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어민들은 해상 운송 과정에서 제기됐던 ▲안전성 검토 ▲영광~경주 구간 시험운항 ▲조업 손실 ▲선박 침몰시 어민 피해 및 수습 대책 등 어민들이 수긍할만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격한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영광수협대책위원회 측은 "어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안전성 확보 없이 이뤄지는 해상 운송이라면 저장 중인 핵폐기물 포화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을 감수하라고도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분한 의견 조율이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영광 뿐 아니라 방사성 폐기물 해상 운송 과정에서 기상 악화시 운송 선박(정정누리호·2600t)의 피항지로 선정된 진도, 광양, 진해, 포항 지역 주민 등 843km에 이르는 항로 인근 조업 어민들도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측은 "한수원 측과 10월 24일을 전후로 1차 운송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며 "첫 운송까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려를 표시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영광=이종윤기자 jlyee@

외나로도~여수 을 첫 적조주의보

예찰 강화·확산 방지 총력

지난 5일 오후 8시를 기해 고흥 외나로도 염포~여수해역에 올해 첫 적조 출현주의보가 발령됐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이에 따라 이 일대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발생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피해예방에 나섰다.

6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남해안에서는 지난 2일 경남 해역(통영~거제시)에 적조 출현주의보가 최초 발령된 이후 5일 전남인 고흥 외나로도 해역까지 확대 발령됐다. 현재 경남 남해군 남면~거제시 남부면 해역은 발생 밀도가 늘어남에 따라 적조주의보가 발령됐다.

여수지역에 발생한 적조는 저밀도의 적조생물이 분포하고 있으나 돌산 동안해역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밀도가 높은(100개체/mL) 적조생물이 출현했다. 이는 최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수온 상승 등으로 적조생물 밀도가 증가한 것으로, 이후 인근 해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7일부터 여수 해역을 중심으로 고흥, 장흥, 완도 등 적조 우심해역과 양식장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적조 예찰활동을 벌여 적조 예찰 결과 및 진행 상황을 관련 유관기관, 양식 어업인 등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조용하란 말에 격분 식당서 행패

○...“식당에선 좀 조용히 하라”고 생면부지 60대가 혼계조로 이야기하자 격분, 먹살을 잡고 주먹질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서 행.

○...6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정모(43)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10분께 동구 소태동 J식당에서 생면부지 60대(이모)씨가 자신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하라”는 말을 듣고는 욕설을 내뱉고 먹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것.

○...정씨는 피해자 이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그는 “(이씨가) 손가락질을 해대며 나를 지목하고 소리치자 순간 화가 치솟았다”며 때늦은 후회.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차량·간판에 막힌 총장로

6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동구 총장로 상가 밀집지역이 오고 가는 차량과 상점에서 내놓은 입간판들로 뒤엉켜 극심한 혼잡을 보였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해상운송 과정은

사용후 핵연료 제외한 폐기물 총칭 운송거리 843km 48시간 안팎 소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된 사용후 핵연료를 제외한 나머지 방사성 폐기물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수, 폐 필터, 농축 폐액, 압고체 등을 모두 포함한다.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은 지속적으로 방사선이 방출되기 때문에 운반 및 보관 과정에 고도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작성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운반 안전성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영광 한빛원전에 보관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 폐

기물은 지난 2009년 건조된 선박(정정누리호)을 이용해 영광에서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운송 거리는 총 843km로 운항 소요시간은 48시간 안팎이다. 한 번에 200ℓ들이 1000드럼을 싣고 운항에 들어가며 연간 3차례 운항 계획이 잡혀있다.

선박은 파고 2.2~3.2m, 초속 20~24m의 풍속까지 안전 운항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승선인원은 운반책임자 1명, 선원 17명, 방사선 안전관리자 2명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집안 비탈길 주차차량 미끄러져 '날벼락'

무안서 탈진 사촌동생 응급처치하던 60대 사망

집 안 비탈길에 주차한 차량이 미끄러져 무더위에 탈진한 사촌동생을 응급처치하던 60대가 숨졌다.

지난 5일 오후 7시50분께 무안군 해제면의 한 주택 마당 비탈길에 주차된 1t 화물차가 미끄러져 강모(69)씨와 강씨의 사촌동생 윤모(66)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강씨가 숨지고, 윤씨도 부상

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강씨는 발에서 일하다 탈진 증세를 보인 윤씨를 아내와 함께 화물차에 태워 집으로 옮긴 뒤 응급처치 중이었다. 강씨의 아내는 119에 구조요청을 한 뒤 급급차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대문 주변에 있던 화물차를 마당 구석 비탈길로 옮겨 주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볼 만 하겠네

광주지법서 다음달 7일 결선

광주·전남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열린다.

광주지법은 다음 달 7일 법원 대법정에서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결선을 진행한다

한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결선을 앞두고 오는 14일까지 모의재판 시나리오를 접수받아 소재의 참신성, 구성·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 10개

안팎의 예선 참가팀을 19일 결정할 계획이다. 법원은 앞서 참가 신청서 제출팀을 상대로 재판 진행절차와 용어 교육 등을 알려주는 기본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법원은 예선 진출팀이 결정되면 팀별로 법관 1명씩을 멘토로 지정, 모의재판을 지도하는 등 학생들을 지원하면서 28일 예선전, 다음달 7일 최종 결선을 진행한다.

법원은 결선 당일 법관, 광주·전남 교육청 관계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

원단을 꾸려 광주지법원장, 광주 교육감, 전남 교육감 등 수상팀을 선정할 방침이다.

참가팀은 재판장, 배석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증인을 비롯, 참여관, 법정경위, 속기사까지 각각의 역할을 학생별로 지정해 재판을 꾸미게 된다.

광주지법 김동욱 공보관은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학생들이 재판 관련 작성 및 역할극을 통해 법원 소송절차를 이해하고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펜션·찻집·식당

전원주택지, 요양(병)원·연수원 적합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 산 2-5번지
- 대 2441평, 건 882평, 임 6726평, 계획관리지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귀농/귀촌 전남지역 제1순위 주위, 전원주택 단지등 개발중!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10억 정도 상승 가능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시세/감정가 - 30억원
- 매매 - 22억원 (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 2.1%)

18개월후 20억까지 대출 가능

공동중개 환영 H.010-3605-5000

- 19평 - 2013년 신축
- 5층 중 5층, 전망좋은, 베란다
- 신우APT 105동 옆, 엘리베이터
- 매매 - 1억 500만원
- (시세/분양가 - 1억 3000만원 정도)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광전파크 빌라

- 34평 - 2013년 신축
- 5층 중 2층, 첫 입주, 정남향
- 신우APT 105동 옆, 엘리베이터
- 대출 1억 1천만원 안고
- 매매 - 1억 6500만원
- (시세/분양가 - 1억 9천만원 정도)

주인직매 H.010-3605-5000

최고위치·근린상가

현재, 빅스 Bar 운영으로 최고 수익!

- 금호동 서광병원 맞은편, 7층중 7층 120평
- 레스토랑/레스토랑/커피/커피전문점/호프/PC방/헬스장 재즈바/노래홀/룸수주방/단란주점/7080/당구장 등 최적
- 매매-5억 7천만원(대출 3억 6천만원 포함) 60평 분할 매매-3억원
- 임대-보 1억에 월 300만원 60평 분할 임대-보 5천에 월 170만원



공동중개 환영 H.010-3605-5000